Entertainment p/18

변호인' 열흘 만에 430만명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Sports p/21

LG·SK·모비스 '3강 경쟁'

대학등록금 인상률 3.8% 제한

NEWS p/02

열차 운행률 60%대로 떨어져

NEWS p/03

메트로신문이 선정한 2013 글로벌 핫이슈 p/10·11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너를 만나,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 박효주 | tvN | JSpictures

응사 막방 시청률 11.9%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김보경·기성용 만점 맞대결

"돌아오라"는 사측 "못하겠다"는 노조 철도 여전히 평행선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서울 구로동 구로차량기지에 열차가 멈춰서 있다(위). 서울 수색차량기지에는 '국민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복귀 못 하겠다'는 노조원들의 현수막과 '정든 일터로 돌아오라'는 사측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철도파업 4주째로 접어드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주식 걱정에 잠 못 드는 겨울밤

쌍용건설·벽산건설 등 상장폐지 앞둔 기업 투자자들 전전긍긍 - 유관 기업·자회사도 큰 파장

장기 불황으로 올해 증시에서 '아웃' 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웅진·STX·동양그룹 등 굵직굵직한 중견기업들도 자금난에 무너진 상황에서 돈줄이 말라붙은 각종 기업들은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있다. 이런 여파를 반영하듯 올 들어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만 36곳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

상폐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지경까지 가진 않더라도 상폐 우려에 주가가 곤두박질칠 우려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든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설업계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 쌍용건설과 벽산건설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쌍용건설이 상폐를 피하려면 완전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5000억원을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했다.

그러나 불과 반년 전 쌍용건설에 긴급 자금을 수혈한 채권은행들이 추가 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연내 지원은 물 건너갔다.

누적 적자 골머리를 앓는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쌍용건설도 지난해 완전자본잠식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상폐 대상이 된다. 거래소 규정상 최근 3년간 사업 연도 중 2년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퇴출된다. 쌍용건설의 주식은 올해 2월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벽산건설의 경우 회생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상폐 가능성이 커졌다. 600억원에 이 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아키드컨소시엄은 계약금 60억원을 뺀 나머지 잔금 납입에 실패했다. 벽산건설이 내년 3월 말까지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증시 퇴출을 피할 수 없다.

벽산건설의 주가는 M&A 기대감에 지난달 초 4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 달 만에 3000원대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M&A 소식에 뒤늦게 달려든 개인투자자들만 돈을 날린 셈이 됐다.

상폐 '폭탄'을 안고 사는 중소 한계기업들도 우려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인 모린스의 주가는 최근 7거래일 중 나흘간 하한가를 쳤다. 사채 대출 원리금으로 270억여 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과 특허권, 상표권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주저앉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건설·IT업체 피에스엔지는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폐 결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가 회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3년 연속 영업손실에 3분기 누적 적자로 주가는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00~3000원대였던 모린스와 피에스엔지의 주가는 이달 각각 300원대까지 폭락하며 동전주 처지가 됐다.

상폐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만큼 실제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상당히 약해졌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들어 장기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는 36개사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2개사를 웃돌았다. 이 같은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61개사, 1999년에 38개사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상폐 우려 기업이 속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기업들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인 까닭도 기업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한 곳이 위태로우면 유관 기업이나 자회사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인천지하철 역사에도 스크린도어 설치된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내년 9월 이전까지 인천지하철 29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340억원을 들여 이미 설치한 역사 12곳을 뺀 17곳에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1단계로 계산·갈산·부평구청·원인재·간석오거리·부평삼거리역에는 내년 2월 준공한다. 이어 내년 4월 인천시청·문학경기장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무리한다.

3단계는 귤현·박촌·임학·경인교대입구·부평시장·동수·선학·신연수·동춘역 등의 9개 역사로 내년 5월까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단 귤현역은 8월 준공한다.

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역내 미세먼지와 소음도는 각각 17.4%와 9.2% 줄어들고 에너지효율은 34%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서울대병원 청렴도 '공공의료기관 꼴찌'

서울대병원이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29일 전국 46개 공공 의료기관의 전·현직 직원과 환자 등 6750명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0점 만점에 7.01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는 강원대병원(7.07점), 경상대병원(7.08점), 경북대병원(7.09점), 충북대병원(7.17점), 부산대병원(7.17점) 순으로 점수가 낮아 대학병원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충북 청주의료원으로 8.36점을 얻었다. 전남 순천의료원(8.35점)과 충남 공주의료원(8.32점)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 의료기관 전체 청렴도는 7.72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 7.86점보다 0.14점이 낮았다. /윤다혜기자

올겨울 처음 꽁꽁 언 한강 올 겨울 처음으로 29일 한강에서 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에 비해 닷새 늦은 것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인근에 결빙이 얼어 있다. /뉴시스

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

'IO'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이견 ·예산안 처리도 '빨간불'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새해 예산안 처리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오후 8시 5분께 다시 협상에 돌입했고, 20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 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30일 다시 만나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김학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방학 잊은 대학 도서관 2014년 갑오년을 이틀 앞둔 29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열공'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상률 3.8% 제한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윤다혜기자

뉴스 & 뉴스

내일 밤 종로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 서울시는 31일 밤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타종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한 각 분야 시민 11명이 참여한다. '화합과 소통'의 뜻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재외공관 71곳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 30일부터 미국 뉴욕주 등 71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5월부터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해당 국가 재외 국민들은 가까운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면 된다.

어린이대공원에 얼음썰매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전통 얼음 썰매장을 내년 2월 2일까지 개장한다.

얼음 썰매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옆 환경 연못에 면적 1825㎡, 둘레 140m의 규모로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입장 및 장비 대여는 모두 무료다.

동덕여대 대학기관평가 인증

동덕여자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이다.

동덕여대는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1700억 아닌 4000억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300억 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 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 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썼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 대출로 발생한 부실 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대출의 대가로 주고받은 국내 유입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민준기자

독성물질 운반선 두 동강 날 위기 29일 오전 부산 앞바다에서 화학물질을 가득 싣고 운항 중이던 케미컬 운반선이 사운전 중이던 화물선과 충돌했다. 해경 소방정이 연기가 솟구치는 케미컬 운반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이 사고로 두 선박이 불에 타는 등 심하게 훼손됐지만 선원 30명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연합뉴스

운전교육받는 대체인력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코레일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이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모의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차 운행률 60%대로 ↓

연말연시 교통대란 우려 커져…코레일측 "대체기관사 147명 채용해 투입"

철도 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주말 열차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 주중(76.1%)에 비해 다소 늘었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 95%, 화물열차는 35.9%로 운행됐다.

그러나 30일부터는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20% 등 필수 유지 열차만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는 승객들의 이동이 많은 시기지만 강원도 등 지역 관광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대부분 취소됐다.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복귀 인원은 2177명으로 복귀율이 24%에 달했다.

직종별로 차량 정비 18.5%, 열차 승무원 42.0%, 역무원 52%, 시설 건축 53.7%, 전기 관리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대체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 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 소지자 127명, 인턴 수료자 4명 등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70%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15일간 교육받은 뒤 부기관사로 투입되며 기존에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인력은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 기관사로 조정 배치된다.

한편 2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내년 1월 9일과 16일 2,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정상체중 女중고생 36% '나는 뚱뚱 콤플렉스'

'최근 한달간 다이어트' 45%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발표한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정상 체중인 여자 중고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자신을 뚱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중·고등학생 7만3549명 가운데 75.6%가 '정상 체중'으로 조사됐으며 남녀 학생의 정상 체중 비율은 각각 71.2%와 82.4%였다. 또 몸무게가 정상보다 무거운(과체중+비만) 남녀 학생 비율은 각각 14.3%,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상 체중 학생의 26.2%는 본인이 살찐 상태라고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자 중고생의 왜곡 비율은 36.1%로 나타나 남학생(22.0%)보다 14%포인트 이상 높았다. 학년별로는 ▲중1 26.6% ▲중2 31.4% ▲중3 35.8% ▲고1 40.7% ▲고2 40.5% ▲고3 40.9% 등으로 집계돼 고학년일수록 스스로 살찐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여학생이 많았다.

또 전체 조사 대상 여자 중고생 3만5760명 가운데 44.7%가 '최근 1개월 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정상체중 여중·고생 '뚱뚱하다' 생각하는 비율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6.6	31.4	35.8	40.7	40.5	40.9

청량리 집창촌 자리에 65층 주상복합 짓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민자역사 주변의 집창촌이 2019년 말까지 주거·업무·문화·숙박·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동대문구는 29일 제3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계획안'이 통과돼 내년에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청량리 민자역사와 지하철 청량리역, 청량리 버스환승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42층 규모의 비주거타워와 그 옆 복합시설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295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각각 세워진다. 비주거타워 옆에는 4개 동, 65층짜리 공동주택 1436가구가 들어선다. /윤다혜기자

"9·15 대정전 국가·한전에 손배 책임" 첫 판결

2011년 9월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순환 단전에 관한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윤다혜기자

'우리 학교로 오세요'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서 재학생들이 카지노 룰렛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종로구 일자리창출 최고등급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용노동부의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11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공연예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환경 개선 사업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동대문시장 주변 안내판 정비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년 상반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에 맞춰 그 주변과 동대문시장 등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내년 1월까지 정비한다.

개정된 도로명이나 건물명 등 변동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외국어 표기 기준도 적용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상철

시인 윤동주 태어나다

1917년 12월 30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가 태어났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더 커진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4년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 2013년 12월 19일(목) 9시 ~ 2014년 1월 14일(화) 18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014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

상담센터 1599 - 2000

국가장학금은?

日 20대 33% "침략전쟁 없었다"

'야스쿠니에 전범 합사' 43% 몰라
"재일한국인 쫓아내야" 22% 공감
젊은 층도 심각할 정도로 우경화

'베토벤'으로 손님맞이 29일 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에 연말을 맞아 준비한 특별 공연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 초청된 지역 합창단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려줬다. /AFP 연합뉴스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전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30대 젊은 일본인들이 과거 일본이 벌인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우경화 폭격'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신문이 최근 실시한 젊은 세대의 정치·사회 의식 설문조사에서 '과거 전쟁은 침략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의 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30대의 28%, 40~50대의 24%가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다.

'침략 전쟁이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5%, 30대는 47%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7%, 60%가 일본의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대의 43%가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30대는 15%였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질문에는 20대의 6%가 '매우 공감한다', 16%가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자민당의 우경화를 바라보는 상당수 일본 젊은층의 인식은 중장년층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거침없는 우향우 행보를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좌경화를 1, 우경화를 6으로 현재 자민당의 이미지 점수를 매기라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3.61점을 줬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스마트기기 '제2의 방송진행자'

시상식에 등장… 프로그램 투표집과 도우미 역할도

연말 방송가에서 스마트 기기가 제2의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3 KBS 연예대상'에서 종이 큐시트 대신 태블릿PC가 등장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상, 모바일TV 인기상 부문 시상 때 나타난 이 태블릿 PC는 LG전자의 신작 'G패드'다. 앞서 삼성전자도 2010년 갤럭시탭 출시 이후부터 각종 스포츠 대회의 연말 시상식에 지시 태블릿 PC를 지원해왔다. 다만 태블릿 PC는 종이 대본보다 무겁고 사용법에 익숙지 않아 특별 행사에서 주로 쓰이는 중이다. 협찬이 아닌 이상 방송 제작비로 감당하기에 상당한 고가인 점도 문제다.

LG전자 관계자는 "KBS 연예대상에 간접광고(PPL)로 G패드를 협찬했다"면서 "인기 방송인 추성훈과 추사랑 부녀가 등장할 때 G패드가 함께 비춰져 큰 화제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온다. 참가자의 모창 능력을 가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전현무는 삼성전자의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 '갤럭시 기어'를 착용한다. 방청객 투표 결과를 갤럭시 기어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생존자와 탈락자를 호명하는 식이다. 참고로 갤럭시 기어에는 갤럭시 노트3와 연동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2013 KBS 연예대상에서 종이 대본 대신 등장한 태블릿PC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전자제품은 소비자들이 작동법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PPL을 통해 제품과 사용법을 자연스레 알리는 마케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설 선물 상품권 패키지 어때요? 신세계백화점이 28일부터 설 선물용 상품권 패키지 판매에 나섰다. 신세계상품권은 신세계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식 기프트카드도 출시해 상품권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상품권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에 1만원권, 300만원에 3만원권, 500만원에 10만원권 등을 증정하는 패키지 프로모션도 펼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상가 사려면 임차인 입장서 생각을"

■ 김연화 기업銀 부동산팀장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그곳에 들어갈 것인지부터 따져보세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세 차익을 거두기기 어려워진 가운데 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상가의 특성상 분위기에 휩쓸려 또는 아는 사람의 권유로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쪽박 차기가 십상이다.

어려운 상가 투자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김연화(사진) 기업은행 PB고객부 부동산팀장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지사지'를 제안했다. 임대인이 되기에 앞서 임차인의 시각으로 상품을 분석하라는 것.

김 팀장은 "상가는 경기에 따른 부침이 심한 상품으로 투자자라면 장사가 잘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점포를 구할 때는 주변 상권, 업종, 시세 등을 꼼꼼히 분석한 뒤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실행에 나서곤 한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임차인처럼 절박한 시선으로 상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김 팀장은 "상가 투자에 앞서 고정 유동인구, 이들의 나이대와 선호 취향, 소비력 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시간대에 따라 인구와 매출의 움직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임대를 주고 월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월세도 받을 수가 없다"며 "어떤 업종으로 상가를 구성할지, 이 점포가 망하면 대체할 업종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l1129@

증권사 '뻥튀기' 주가전망

증권사들은 매년 새해를 앞두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주가지수의 동향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가 최고 255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최고점은 2063선에 그쳤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 최고점은 지난 10월 23일 기록한 2063.28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10월 30일 2059.58이었다.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증권사 19곳이 제시했던 올해 코스피 최고점의 범위인 2150~2554와 비교하면 작게는 100포인트, 많게는 500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증권사 전망 최하단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해 코스피의 고점을 가장 높게 예상했던 증권사는 HMC투자증권으로 무려 25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증권사들은 저점을 비교적 잘 알아맞혔다.

올해 코스피의 장중 기준 최저점은 6월 25일 1770.53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날 종가인 1780.63이었다.

지난해 말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올해 코스피 저점 범위 1700~1900과 비교하면 최하단에 맞아떨어진 셈이다.

저점을 가장 낮게 전망했던 증권사는 1750을 제시했던 KDB대우증권이었다. /김봉철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02.28 (+2.98)	491.77 (+7.90)	2.83 (-0.05)	1054.50 (-4.50)

뉴스 & 뉴스

가좌 행복주택단지 확정

●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의 사업계획이 행복주택 7개 시범 지구 중 가장 먼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가좌지구 2만5900㎡, 362가구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좌지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대학생 특화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20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2017년 말 입주가 목표다. /박선옥기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선옥기자

삼성 상업용 디스플레이 선봬

● 삼성전자가 다음달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에서 호텔TV 솔루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결합한 전자칠판 등 새로운 상업용 디스플레이(LFD)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LFD 부스를 한 채의 첨단 호텔처럼 꾸미고 ▲호텔TV 솔루션 ▲전시 칠판 솔루션 ▲세계 최대 크기의 95형 LED LFD 등을 시연하며 호텔의 미래를 구현한다. /김태균기자

로또복권 제58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6	12	14	27	34	42	1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736,655,575
2등	5개 숫자+1등 보너스 숫자	54,156,085
3등	5개 숫자 일치	1,442,06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88
2005년 5월 24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8

대게의 계절 매서운 추위가 계속된 29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항 수협 공판장에서 중매인들이 손가락으로 가격을 제시하며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구룡포항은 전국 대게 위판량의 54%가 팔리는 곳이다. /연합뉴스

알뜰 홈파티 '살뜰' 연말

간편하고 맛깔난 음식 준비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 모임이 한창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오붓하게 즐기는 홈 파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시중에 나와있는 간편 제품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색다른 파티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의 도움을 받아 저렴하면서도 멋진 홈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스파게티 소스, 색다른 파티 음식에 활용

시중에 나와있는 스파게티 소스는 기본 스파게티 외에 다양한 파티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다. 해산물을 즐긴다면 다양한 해산물에 채소를 함께 넣고 만드는 해산물볶음을 추천할 만하다. 다양한 재료에 청정원 '갈릭올리오 스파게티소스'를 넣고 볶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해산물의 맛이 살아있는 깔끔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좀 더 색다른 파티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카치아토레가 제격이다. 카치아토레란 이탈리아어로 '사냥꾼의 음식'이란 뜻으로, 토마토 소스로 간을 맞춘 닭고기 요리다. 이 요리는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볶은 후 올리브유·소금·후추 등으로 밑간을 해둔 닭봉을 넣고 굽는다. 다음으로 블랙 올리브와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살짝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뚜껑을 닫아 와인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인다. 여기에 청정원 '토마토스파게티소스'와 베이크드빈스, 사과즙을 넣고 볶은 후 소금·후추로 간을 하면 완성된다. 백설 '토마토 파스타소스', 오뚜기 '프레스코 토마토 스파게티소스' 등도 활용 가능하다.

중화풍 난젠완쯔(완쯔)와 크랜베리 펀치(오른쪽). 아래 사진은 치킨카치아토레.

◆냉동식품, 중국 음식으로 재탄생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에 몇 가지 재료만 더하면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중국 음식으로 재탄생된다.

냉동 동그랑땡은 중화풍 난젠완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 다진 대파를 넣고 약불로 향을 낸 후 청정원 '손맛 살린 통살동그랑땡'을 굽는다. 반 정도 익었을 때 먹기 좋게 자른 표고버섯, 죽순, 양파, 파프리카, 굴소스를 넣고 센 불에 볶아 완전히 익힌다. 물을 약간 넣고 끓어오르면 전분물을 넣고 농도를 맞춰 마무리한다. 기름에 튀긴 대파채를 함께 곁들이면 보다 먹음직스러운 난젠완쯔가 완성된다. CJ제일제당 '프레시안 도톰동그랑땡', 아워홈 '손수 다져만든 동그랑땡', 동원 '명품 동그랑땡' 등의 제품도 있다.

◆파티 분위기 더해주는 간단 칵테일

예쁜 빛깔의 칵테일 한 잔이면 홈 파티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다. 그랜베리주스는 붉은색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칵테일에 활용도가 높다. '크랜베리 진 피스'는 얼음을 채운 잔에 약 40㎖의 진(Gin)을 넣고 레몬즙 2스푼을 섞은 뒤 크랜베리주스와 탄산수를 취향에 맞게 넣으면 완성된다. 오션스프레이의 크랜베리주스는 깔끔하고 깊이있는 맛으로 칵테일용으로 선호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알코올 칵테일로는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눈과 입이 함께 즐거운 '크랜베리 펀치'를 추천한다. 냉장고에 있는 남은 과일을 활용해도 좋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얼음을 넣은 볼에 크랜베리주스 약 1.5ℓ와 오렌지주스 1컵을 쉐고 탄산수 2컵을 넣어 청량감을 더한다. 여기에 오렌지·사과·포도·배 등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띄워주면 완성된다.

/정경희기자 jmme@metroseoul.co.kr

어, 딸기가 겨울과일 1위네

늦더위 탓 감귤매출 제쳐

대형마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겨울철의 대표 과일로 여겨지던 감귤이 딸기에 1위 자리를 내주는 현상이 벌어졌다.

롯데마트가 본격적 추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과일 매출을 집계한 결과, 딸기가 감귤을 제치고 처음으로 겨울 과일 1위에 올라섰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마트에서 12월 딸기 매출이 감귤 매출을 앞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것이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연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겨울 과일이다.

감귤은 10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며 이듬해 2월까지 주로 판매된다. 이 때문에 12월은 감귤의 매출 비중이 과일 중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는 달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12월에 1위 과일의 품목이 바뀐 것이다.

올해 12월에 딸기가 많이 팔린 까닭은 딸기 주요 산지인 산청과 진주 등 경상남도 지역에서 올해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이어져 딸기 생육이 예년보다 2~3주 정도 앞당겨져 11월 초부터 본격 출하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12월 딸기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면서 딸기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1%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감귤은 오히려 더위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5월부터 일찍 찾아온 더위와 여름철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감귤 자체의 당도와 크기 등 작황이 부진하면서 12월 평균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15%가량 오른 상태다. 결국 롯데마트에서 12월 감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가량 줄어들었다. /함따름기자

CJ제일제당, 외국인 대상 '김치 쿠킹클래스' 열어

CJ제일제당은 지난 28일 CJ제일제당센터 백설요리원에서 프리미엄 김치인 '하선정 8가지 자연재료 아삭 썰은 김치 (이하 8아삭김치)'를 활용한 외국인 대상 '김치로 만드는 겨울철 별미 쿠킹클래스'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엔 각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미국·스위스·러시아 등 각국 출신의 남녀 외국인 1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잠 퐁 브레즈 셰프의 시연과 지도에 따라 겨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베이스의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병일기자

희비 교차한 박근혜와 아베

뉴스룸에서
김민준 <정치사회부장>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 관계로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집단자위권' 등 일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일본이 2차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자주 비쳤다.

반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줄곧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 회의가 집중됐던 지난 10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거부로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일본과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진 '박근혜식 대일 외교'는 국내 자본가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 더 많은 이득을 원하는 유럽 열강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박근혜식 대일 외교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됐다.

반면 아베는 미국 정부마저 "실망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당황해하고 있다. 동맹관계 강화를 모색해온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커녕 불신을 자초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야스쿠니 참배가 이런 분위기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승인으로 미·일 간 군사동맹이 한층 강해질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참배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다.

독일 언론 역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의도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각국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번 참배가 '부전(不戰)' 맹세에 주안점을 둔 참배라는 입장을 각국에 '간절하게' 전달할 방침이지만, 물밑에서 아베 정권에 야스쿠니 참배 자제를 요청해왔던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이해를 얻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의 도발이 한·일 양국의 외교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궁금하다.

특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론탁설
유병길 <언론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대 국정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첫 1년을 보내게 됐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체로 저성장의 그늘 아래 소모적인 정쟁으로 점철된 나날이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등 대선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면서 대치 정국으로 치달았다. 이 바람에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물론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알차게 벌였고 대북 대응도 원칙을 살려가며 새로운 관계를 찾고 있다. 덕분에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안정선을 유지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줄곧 지켰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나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내려가고 있다.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만 해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실험하는 중이다. 그 대신 아직 창당도 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이 예상을 깨고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정도였으나 부동층이 상당수 가세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너무 한가하다.

집권 2년째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 특단의 리더십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치적 혐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량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장외 집회 등 어느 부문에서는 야당의 행태를 배우려는 기미도 엿보인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 역량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와 정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비교하려는 국민 정서가 강하다.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마침 얼마 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해의 각오를 밝히면서 "120년 전 갑오개혁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국정 방향 제시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치 발전, 노·사·정 관계, 서민경제 대책 등 당면한 문제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포토프리즘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1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열차표를 예매하고 있다. 매표 창구에 붙어있는 코레일의 안내문이 눈에 띈다. 이날 오전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인간적이라 좋은 '인간의 조건'

기자수첩
박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KBS2 '인간의 조건'이 방송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지난해 11월 말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8일 '스트레스 없이 살기' 마지막 편 방송에서 멤버들이 1주년을 기념해 휴대전화와 자동차 없이 '아날로그 MT'를 떠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인간의 조건'의 이번 1주년은 의미가 남다르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와 예능이 판치는 요즘 방송계에서 공익적인 콘텐츠로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년이나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지점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멤버들이 시청자들을 대신해 쓰레기, 자동차, 전화, 돈, 물, 전기 없이 살기 등을 일주일간 체험하는 모습으로 아날로그의 향수를 자극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를 줬다. '인간다움이란' 행복해지는 길이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타 지상파 채널은 물론 종편 채널에도 밀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방송 1년이 지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는 필요하지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찾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pjh1427@

저물어가는 시간과의 대화

인문학 산책
김인용 <성균관대 교수>

그동안 꽁꽁 가둬 두었던 한파였나 보다. 병마개가 열리는 순간 빠져나온 지난 저편 겨울의 입김은 호리병 안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없는 냉기를 뿜어낸다. 기세가 자꾸 강렬해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금세 눈발이 날릴 듯한 기세이다. 맑았던 하늘이 짙은 회색을 머금자 마음의 불빛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한다.

시간은 계절의 온도에 따라 녹거나 얼어붙지 않는다. 그러기에 시간의 속도는 때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자신이 다녀갔다는 자국을 남긴 채 이내 떠난다. 그 야멸찬 걸음에서 미련이나 아쉬움은 늘 우리 편에 있다. 스스로의 궤도에 이토록 지치지 않고 냉정할 정도로 성실한 존재는 우주를 온통 뒤져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달리거나 뒤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아직'과 '드디어' 사이의 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그런 착시가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바라는 바가 이뤄지는 순간은 언제나 더디고 지나간 세월은 아무리 빠르게 뒤쫓아가도 다시 잡을 수 없다. 열심을 다해 구애해도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는 애태우게 하는 연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겹게 고개를 넘고 나면 목표가 보일지에 대한 불안감, 망망한 벌판에 홀로 서 있다는 두려움, 늪으로 빠져드는 듯한 위기, 또는 발밑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긴장을 겪는다. 이 모든 것은 다 명료하게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의 정체에서 비롯된다.

시간을 알아챌 수 있다면 보일 내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도 미리 열 수 없는 질문이다. 열쇠는 단 하나 '기다림'이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내게 찾아와줬던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떠난 시간들이 남긴 자취를 깊이 어루만져보는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쌓아가는 거다. 그러면 다시 나를 찾아와줄 새로운 시간에 대한 자세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에 대해 상상력이 가세한 염려가 지나쳐 초조해지거나 또는 지나간 일에 대한 피곤한 후회로 영혼이 바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날카로운 바람이 우리를 습격하고 우울한 날들이 회색 하늘처럼 지붕을 덮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따뜻한 등불 하나씩 켜지는 즐거움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 저무는 것은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어서 결국 시간은 우리의 존재 안에 그대로 담겨있다.

'트래블 카페'로 미리 떠나요! 해외여행

커피·음료 마시며 상담·예약 등 원스톱 여행준비…최신 자료·서적 등도 공유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이재은(22)씨는 요즘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여행 전문 서적과 인터넷 카페·블로그를 찾아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서적을 모두 구매하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인터넷도 신뢰성 없는 정보로 가득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여행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씨와 같은 여행 준비객들을 위한 여행 테마의 '트래블 카페'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행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여행 관련 서적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래블 카페들은 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콘셉트 및 전문가의 여행 상담 및 여행 예약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카페 뚜르 드 카페(왼쪽)와 에어카페 비행기

◆파리의 생생함을 그대로, 서촌 소쿠리패스 메트로

패스 전문 여행 쇼핑몰 소쿠리패스가 운영하는 여행 테마 카페 '카페 메트로(Metro)'가 있다. 이곳에선 소쿠리패스에서 취급하는 파리 뮤지엄 패스나 파리 비지트와 같은 각종 패스 상품 및 여행 상품 정보 등을 여행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 에펠탑 2층을 형상화한 인테리어와 라이브로 흐르는 프랑스 음악, 그리고 한 쪽 벽면에 그려진 파리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파리의 생생함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사진으로 만나는 아프리카, 청파동 마다가스카르

서울 청파동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는 여행 사진작가 신미식이 오픈한 여행 카페다. 마다가스카르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는 작품 전시장이 되고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손님들에게는 편안한 소통의 장이 된다. 여행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여행사진 책들도 다양하게 구비돼 있으며 벽면의 바오바브 나무 사진이 마다가스카르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 전문가와 커피 전문가의 만남, 강남 하나투어 '뚜르 드 카페'

하나투어와 제리빈스가 지난 2월 오픈한 트래블 카페 '뚜르 드 카페(TOUR de CAFE)'는 여행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다. 카페 내 마련된 여행 상담실에서 여행 상담과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호주 대표 커피 브랜드 제리빈스의 커피 감별사가 직접 로스팅한 오스트레일리아산 원두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기내식 콘셉트 비행기 카페, 홍대 '에어카페 비행기'

비행기와 공항 콘셉트로 꾸며진 '에어카페 비행기'는 기내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음식이 제공되는 테마 카페다. 카페에는 다양한 여행 도서가 구비돼 있으며 카페 주인이 직접 여행지를 추천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국내 기내식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기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여행에 대한 추억이 담긴 사진, 기념품, 팸플릿을 카페에 기증하면 음료를 리필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illegible] 기자

'국가대표 겨울축제' 추워야 제맛!

인제빙어축제 1월18일 개막 농촌체험·노래자랑도 열려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인제빙어축제'가 드디어 열린다. 축제는 내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강원 인제군 인제대교 일대 소양호에서 개최되며 '빙하시대! 놀이천국!'이라는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우선 축제에서는 빙어를 직접 잡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 빙어 낚시로 잡은 싱싱한 빙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으며 튀김과 비빔 등으로의 요리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다형 그물로 만들고 가물 잡는 소양호 어둠털기가 진행되며 빙어먹거리촌, 산촌먹거리촌, 추억의 먹거리촌 등에서는 자연산 빙어를 재료로 한 빙어회, 무침, 튀김 등과 산촌의 전통 먹거리를 실컷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4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형 눈조각과 얼음 터널, 비상하는 빙어 조형물과 얼음숲 공원이 조성됐으며 소원 성취 바람개비동산, 빙어마을 솟대공원 등도 마련됐다. 또 빙어마을 얼음썰매장, 스릴감 넘치는 트래킹 대회, 산촌 문화 체험, 아이스 보일 두어 냉썰 타기, 전국 얼음 축구대회, 전국 빙어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농·산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농촌 체험 행사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축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는 한국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 축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illegible] 기자

'블랙리스트 항공사' 새해부터 인터넷 공개

정부가 항공사 블랙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대책은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여행 증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마련됐다. 소비자원 등은 우선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권 광고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항의 운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 여행사가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예정이다.

/[illegible] 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매서운 찬바람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의 무릎을 더욱 아프게 한다. 낮엔 찬바람에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 밤엔 잠을 설친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지고 다리가 O자형으로 휘거나 무릎이 붓고 물이 자주 찬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평생 사용해온 무릎 연골이 점차 닳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을 했다면 운동과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 상태 호전이 가능하지만 말기에 이르렀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참으며 지내고 있다. 수술받을 능력이 된다면 굳이 참고 살 필요가 없겠지만 수술 비용이 비싼 인공관절 수술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수술을 받지 못해 통증을 참으며 지내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극심한 무릎 통증, 퇴행성관절염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갖게 되는 질병 중 하나로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여행은 물론 집 주변 산책조차 힘들어져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

퇴행성관절염은 흔히 초·중·말기로 구분되는데 초기나 중기의 경우는 진행 정도에 따라 연골을 보존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말기로 접어든 상태라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다 닳아버려 뼈가 서로 맞닿은 무릎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연골을 대체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수술받고 싶지만 부담되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

이런 이유로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수술할 경우 환자 부담금은 대략 250만~300만원 정도이며 입원비, 검사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약 6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거동이 불편해도 비싼 수술비로 인해 쉽사리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팝업창을 통해 신청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엄홍길 대장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비용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후원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한 무릎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한국창조경영브랜드' 대상 수상

백남선(사진 왼쪽)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시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2013 한국창조경영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창조경영브랜드 대상은 미래성장 동력 강화에 기여하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이끈 경영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으로 백 병원장은 유방암 전문의로서 국내 유방암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한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병원장은 유방암 환자들의 체계적인 치료와 예방 교육을 위해 1997년 한국유방암학회를 설립하고 한국유방암학회장, 아세아유방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황재용기자

에스플란트치과 '명품병원'에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최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에서 '명품 병원 임플란트 치과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메디컬코리아대상은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 과목별 최우수 병·의원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끈 글로벌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더 따뜻하고 폼나게 입자

패션업계 세련미 더한 '방한용 웰비즈' 잇따라 출시

계속되는 추위에 비즈니스맨은 떨고 있다. 패딩 점퍼와 같은 방한용 아이템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싶지만 오피스룩에 적합하지 않아서다.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보온성을 강화한 비즈니스 의류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측면에 체온을 유지하고 세련된 스타일까지 겸비한 이른바 '방한용 웰비즈'로 불리는 제품들이다.

헤어작하우스는 아웃도어 의류에 주로 쓰이는 보온 소재인 라이크라를 사용한 '웜 에센셜 티셔츠'를 내놨다.

자체 발열 가능성 소재로 보온 효과는 물론 신축이 땀을 배출해 착용감도 쾌적하다. 라운드 브이넥 등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돼 카디건이나 재킷 안에 가볍게 입을 수 있다.

마인드브릿지는 보온성이 좋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웜 테이퍼드 팬츠 등 출시했다. 기모 원단을 활용해 가볍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울 팬츠에 비해 촉감이 부드럽고 활동하기 좋다.

더 클래스의 '긱 시크 웜 셔츠'는 드레스셔츠에 기모 처리를 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울이나 플란넬과 같은 따뜻한 소재에 그레이 블루 버건디 등 유행 색상과 체크 패턴을 더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오피스룩을 연출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카라 '에너지절약 나눔 패션쇼' 카라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7~29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2013 겨울철 에너지 절약 사랑 나눔 바자회'에 참가해 동절기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와 체온 유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옷차림을 제안하는 따뜻한 나눔 패션쇼 등을 진행했다. /카라 제공

팩·페트형 와인 신 트렌드로

최근 와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와인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모임과 파티 등은 물론 혼자서도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다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을 찾는 소비자들이 소용량에 마시기 간편한 와인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4(미래의창 펴냄)'에서는 식음료업계의 '이색 변신 음료'로 팩에 담긴 와인의 휴대성과 간편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팩 와인 '보니또 상그리아'

어렸이 모일 때 혹은 혼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분위기를

살려주는 아이템으로 와인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무거운 와인병과 전용 오프너·와인 잔 등 준비할 것이 많아 번거롭다. 하지만 팩 와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또 와인 상그리아(사진 왼쪽)는 250㎖의 미니 사이즈로 테트라팩의 무균 충진 시스템을 활용한 팩에 담아 변질에 대한 걱정 없이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또 와인 잔이나 오프너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고, 사이즈도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하다. 도수도 4.5도로 낮아 간편하게 분위기를 낼 수 있어 더욱 인기다.

◆페트 용기로 즐기는 햇와인 '보졸레누보 까르 드 프랑스'

와인나라에서 출시한 햇와인 보졸레누보 2013 까르 드 프랑스(Carre de France)(오른쪽)는 프랑스 1위 와인 생산업체인 카스텔(CASTEL)사에서 수입한 최고품질의 와인으로, 페트병에 담긴 것이 특징이다. 페트 용기에 담겨졌기 때문에 기존 병 와인 무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운송비가 절감돼 가격도 내려갔다.

/정하균기자 [illegible]

하루 2회 30분씩 환기하라

실내 곰팡이 퇴치 노하우

겨울철 실내 벽면에 생긴 곰팡이 때문에 고민하는 주부들이 많다. 벽이나 창문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으로 만들어진 물방울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곰팡이가 피기 때문이다. 주방세제 브랜드 피존이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 예방과 제거 방법을 소개했다.

겨울 곰팡이의 원인인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를 줄여 예방할 수 있다. 유리창에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시트를 바르면 창문의 열전도율을 낮춰 결로현상에 현저히 줄어든다.

또 다른 방법은 '환기'다. 실내 환기를 소홀히 할 경우 습기가 배출되지 않아 오히려 집 안이 눅눅해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겨울철에는 창문을 열고 최소 30분씩 하루에 2회 정도가 적당하다. 겨울철 외부 공기는 습도가 20~35%로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환기로도 충분히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집 안 물건들은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쌓이든 물건이 벽면과 밀착하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고 습기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벽면 가까이엔 물건을 쌓지 말고 물건 사이사이에도 간격을 두고 놓는다.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전용 세정제로 닦아 즉시 제거해야 한다.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벽지를 뜯어내고 단열공사를 하거나 곰팡이 방지 작업을 한 뒤 새로 도배를 하는 것이 좋다.

/박지원기자 pjw@

세계 요리 즐기는 로맨틱한 하룻밤

쉐라톤 인천 호텔 '메트로 윈터 패키지' 60% 할인 이벤트

쉐라톤 인천 호텔이 새해를 맞아 30일부터 메트로 고객들만을 위한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넓은 유리창으로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디럭스룸에서의 1박,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및 객실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3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단 1주일간만 예약할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메트로 지면에 게재된 전화번호 혹은 e메일을 통해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특별히 정상 가격에서 60% 할인된 17만원부터(평일 기준, 세금 및 봉사료 별도) 패키지가 제공된다.

문의: 032)835-1004 reservation.incheon@sheraton.com

/황재용기자

'블랙이글' 납품업체 블루윙 온라인쇼핑몰 오픈

대한민국 공군에 각종 패션 제품을 납품하며 2007년부터 국내에 개최되는 각종 에어쇼에서 '블랙이글' 관련 상품을 선보인 에어로 전문 패션업체 ㈜블루윙이 온라인 쇼핑몰(www.bluewing.co.kr)을 오픈했다.

㈜블루윙은 공군과 정식 계약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에 납품하는 패션 제품들과 항공기 기반의 의류·모자·액세서리 등 상품을 기획·제조·판매하고 있다.

㈜블루윙은 각종 에어쇼에서 고객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로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정신을 자사의 기본 모토로 삼아 고퀄리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에어로 전문 패션업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은 지난해 영국에어쇼에 참가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블루윙 제품 중 블랙이글에 관련된 엠블럼 마크(도안), 항공기 디자인에 대한 법적 권한은 대한민국공군이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제품은 디자인출원 등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 권한이 ㈜블루윙에 있다. 홈페이지 http://www.bluewing.co.kr

/[illegible]

불도저식 연애 스타일 가진 털털남

'상속자들'로 김탄 신드롬 일으킨 이민호

배우 이민호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2009년 KBS2 '꽃보다 남자'(이하 '꽃남')에 이어 올해 SBS '상속자들'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민호는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을 만들었다"고 밝게 웃었다.

◆김탄, 구준표와 달랐다

이민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꽃남' 속 구준표와 '상속자들'의 김탄의 시작은 재벌가 자제라는 점에서 비슷했다. 그러나 설정만 같을 뿐 스무살 살(구준표)과 스무일곱 살(김탄)의 이민호는 달랐다. 덕분에 안하무인 구준표와는 달리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아픔을 가진 김탄을 대사 톤과 표정 연기 등으로 차별을 줬다. 그 결과 구준표는 까칠하기만 했던 재벌남인 반면 김탄은 자유분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재벌남으로 표현됐다.

그는 "'꽃남'에 출연할 당시 젓가락질부터 승마, 검도까지 구준표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없었다"면서 "탄이는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나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해보자고 결심했고, 그게 팬들과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도 김탄 스타일

극중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 "나 너 좋아하냐?" 등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대사들을 양산하며 시청자들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켰다. 이런 대사만 하더는 마치 블랙홀처럼 여심을 빨아들였다. 실제로 느끼하기보다 털털한 성격인 그는 "처음 대본을 받고 소리를 질렀던 대사가 있다. 바로 '지금부터 나 좋아해'. 가능하면 진심으로 다.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김탄과 비슷하다. 그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지켜본다. 내 여자라는 확신이 생기면 앞만 보고 달려간다. 탄이와 이 점은 같은 것 같다"고 연애 스타일을 설명했다.

◆리얼 예능 출연하고파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민호의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꽃남'으로 스타덤에 오른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이후 SBS '신의'에 출연할 때도 김희선 혼자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출연했다. 그는 "일부러 출연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토크쇼나 틀에 짜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보다 배우니까 연기로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명했다.

다만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MBC '일밤-진짜사나이' 등 리얼 버라이어티에 대한 관심은 컸다. 그는 "마치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것처럼 몸을 쓰거나 게임을 하면서 제약 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리얼 예능은 출연하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해외 작품 진출 계획

이젠 해외 진출을 노릴 만도 하다. '꽃남'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신의' '상속자들' 등 그가 출연한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국내외 팬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시티헌터'가 방영된 후 이민호의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시나웨이보 팔로워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아시아 전역이 '민호 앓이'를 하고 있다.

그는 "내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곳(한국)이다. 좋은 작품으로 팬들에게 인정받은 후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싶었다"고 설명한 뒤 "최근 해외에 다녀왔는데 이제 국내 작품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국내 활동에 집중하면서 해외에서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성윤 기자 yswv@metroseoul.co.kr

사진/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운지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추억앓이… 형만한 아우 있었다

종영 '응사'가 남긴 것들

30~40대 폭넓은 정서 끼안아 고아라·정우·바로 등 재발견

시작부터 끝까지 뜨거웠다. 케이블 tvN 금토극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 사진)는 과거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김정신의 세밀한 묘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덕분에 '전편만 한 속편 없다'는 소포모어 징크스를 깨고 케이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응사'가 남긴 기록을 살펴봤다.

◆ 또 또 [illegible] 던이은 시청률 경신

28일 방송된 '응사' 21회는 평균시청률 11.9%, 순간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상파를 제외한 역대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이다. 특히 막장극들의 홍수 속에서 가족극과 멜로·시트콤·로맨틱 코미디 등 따뜻한 이야기로 다양한 장르를 버무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받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소포모어 징크스는 없다

'응사'는 '응답하라 1997'(이하 '응칠')제작진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선보인 작품으로 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응칠'과 같았던 '남편은 누구일까'라는 비밀 퍼즐은 한층 더 살아난 수수께끼가 됐다. 또 더 풍성해진 캐릭터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 전작에 이어 집단 창작과 기존 드라마의 관행을 깬 극본과 구성·연출을 선보이며 '이능 고수'들의 두 번째 드라마가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다.

또 기존에 없던 금토극 '오후 8시40분' 편성 등 이례적인 행보로 새로운 시간대를 개척하며 주인극 산감자로 자리매김했다. '응칠'이 한정된 세대(30대 초반)를 다뤘다면 '응사'는 30~40대의 폭넓은 정서를 끼안는 데 성공했다.

◆ 신의 한 수 캐스팅, 캐릭터쇼

'응사' 출연진을 살펴보면 재발견, 재조명, 원석 발견, 명불허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평도 청춘을 연기한 고아라(성나정), 정우(쓰레기), 유연석(칠봉), 김성균(삼천포), 손호준(해태), 바로(빙그레), 민도희(조윤진)는 제작진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주·조연의 구분 없이 저마다 각자의 스토리에 충실했다. 사투리와 생활 연기 등 자연스러운 연기를 원한 제작진에게 포착된 이들은 현재 모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광고와 예능 등에서 러브콜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응칠'에 이어 '응사'에서도 극의 중심을 잡고 특유의 유쾌한 연기를 선보인 성동일·이일화는 명불허전이었다. 또 다양한 카메오를 등장시켜 '응사'만의 특별한 재미를 이끌어냈다. /전성문기자 yuu@metroseoul.co.kr

이문세 단독 콘서트 12만 관객 최고기록

가수 이문세(사진)가 올해 전국투어로 12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소속사는 29일 "이문세가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연을 끝으로 전국투어 '대한민국 이문세'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전국투어에는 총 12만 명을 동원했으며, 이는 올해 단일 콘서트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문세는 6월 1일 전국투어에 돌입한 뒤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5만 관객을 모았고, 14개 도시 순회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켰다.

그는 이날 애국가를 지휘하며 무대에 등장한 후 20여 곡에 이르는 자신의 히트곡으로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녹였다. '붉은노을'을 비롯해 '소녀'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을 지칠 줄 모르는 무대 매너로 선보였다.

전국투어를 총 연출한 이종일 감독은 "이문세의 위상이 공연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 17년간 공연계에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문세의 콘서트는 지칠 줄 모르고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이문세'는 지방 기획사의 요청에 의해 추가 연장 공연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포항·부천·제주·안양·김산·원주 등 10여 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

SBS '너목들' '상속자들' 다른 부문 | MBC 최우수상 후보 모두 대상 자격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은 누구

시상식의 계절이 돌아왔다. 27일 '2013 KBS 가요대축제'를 시작으로 각 방송사별로 순차적으로 시상식을 열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중 3사의 연기대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S와 MBC가 연기대상의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이다.

야왕'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 '주군의 태양', '상속자들' 등 올해 드라마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SBS는 31일 방영될 '2013 SBS 연기대상'에서 부문별 선정 기준을 바꿨다. 연기 드라마의 치열한 경쟁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미니시리즈(월화드라마·드라마 스페셜(수목드라마)·주말/연속극으로 부문을 나눴지만 올해에는 장편드라마(30부작 이상의 작품)·중편드라마(20부작 이상~30부작 이하)·미니시리즈(20부작 미만)·단막 특집'으로 부문을 나눈 것이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은 하반기 SBS 최대 화제작인 '너목들'을 미니시리즈 부문에, '상속자들'을 중편드라마 부문에 속하게 하면서 경쟁을 치하게 만들었다.

주군의 태양 소지섭·공효진(왼쪽부터)

MBC는 논란이 됐던 지난해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30일 방송될 '2013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후보는 자동으로 대상 후보가 된다. 따라서 미니시리즈·특별기획·연속극 등으로 나누어진 각 부문 최우수상 후보가 모두 대상을 욕심낼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다.

한편 31일 개최될 '2013 KBS 연기대상'에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공효진과 수애, 송혜교가 불참하는 SBS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3년 만에 브라운관에 컴백한 '직장의 신'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슬픔을 연기한 김혜수, '비밀'에서 조토커'(조민혁+스토커)라는 별명을 만든 지성과 폭풍 연기를 펼친 황정음, '굿 닥터'의 주역인 주원·문채원·주상욱이 참석해 기대를 높인다. /김선웅기자

김준수 35인조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습 현장 공개

JYJ 김준수(사진)가 35인조 오케스트라와의 라이브 연습 현장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30·31일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릴 김준수의 단독 콘서트 '2013 시아 발라드 & 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vol 2'의 연습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김준수가 뮤지컬 디셈버 스케줄 틈틈이 35인조 오케스트라와 라이브 공연 연습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 김준수는 35인조 오케스트라 밴드와 함께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디셈버'의 주요 넘버와 자신의 솔로 앨범 수록곡인 '착한남자' OST '사랑은 눈꽃처럼'과 '기황후' OST '사랑합니다' 등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유순호기자

star bag

中 영화 '향기' 촬영차 출국

배우 박시후가 중국 영화 '향기'(가제) 촬영차 출국하며 활동을 본격 재개했다.

그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영과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상하이로 떠났다.

'향기'는 지난 2월 연예계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박시후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마초 흡연 혐의 집유

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얼리스트 작가와 결혼식

개그맨 겸 배우 안상태가 29일 결혼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신관홀에서 4세 연하의 예비신부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안상태는 2년 동안 예비 신부와 핑크빛 만남을 이어오던 끝에 최근 결혼을 결심하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준비해 왔다.

예비 신부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의 얼리스트 작가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소문난 재원이다.

'프레젠트' 대만 차트 1위

남성 밴드 씨엔블루가 첫 번째 베스트 앨범으로 대만 음원차트를 점령했다.

29일 대만 최대 온라인 리테일 사이트 '빅스닷컴'에 따르면 씨엔블루의 베스트 앨범 '프레젠트'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 달간 집계한 월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내년 1월 3일 대만에서 정식 발매될 이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월간차트 1위를 휩쓸며 씨엔블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프레젠트'는 씨엔블루가 일본에서 발표했던 자작곡 10곡을 엄선해 멤버들이 직접 한국어로 개사한 앨범이다.

'변호인' 열흘만에 430만명 돌파 '아바타' 보다 흥행 속도 빠르다

영화 '변호인'(사진)이 개봉 열흘 만에 43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변호인'은 28일 58만9025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432만361명을 기록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 관객을 모은 데 이어 빠른 속도로 관객 수를 늘려가고 있다.

'1000만 영화' 중에서는 '아바타'가 11일, '7번방의 선물'이 12일, '괴물'이 왕이 된 남자'가 14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해 '변호인'의 최종 관객 수에 관심이 쏠린다.

'변호인'은 개봉 첫 주 금요일인 20일 29만4701명을 동원했고 2주차 금요일인 27일 약 15% 상승한 33만9109명을 불러모아 시간이 지날수록 흥행세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28일 박스오피스는 2주째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변호인'에 이어 '용의자'가 30만9440명을 동원해 2위에 올랐다. '어바웃 타임'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 '스마우그의 폐허' '집으로 가는 길'이 뒤를 이었다.

/장순호기자 suno@

1월부터 기대작 풍년일세

'조선미녀삼총사' '더 울프…' 등 줄줄이 개봉

영화계가 사상 최초로 관객 2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극장가에도 연초부터 기대작이 줄줄이 쏟아져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1월 개봉될 '조선미녀삼총사'다. 하지원·가인·강예원이 미녀 삼총사로 등장해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마다 히트시킨 하지원이 만능 검객으로 나서 할리우드판 '미녀삼총사'의 리더였던 캐머런 디아즈 못지않은 액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다시 돌아온 이종석과 지난해 '늑대소년'으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박보영이 뭉친 '피끓는 청춘'도 같은 달 개봉해 젊은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가로 재촉할 예정이다.

정재영·한지민 주연의 '플랜맨'(9일 개봉)은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는 남자가 무계획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쾌하게 그리며, 황정민·한혜진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때'는 순정파 건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다.

해외 기대작도 1월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다섯 번째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는 주가 조작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인물의 실화를 그린 작품으로 9일 개봉한다. 디캐프리오가 전라 노출을 하는 열연을 펼친다.

16일 개봉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두 소녀가 강렬한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인사이드 르윈'도 29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코엔 형제의 첫 음악영화로 빈털터리 무일푼 뮤지션의 7일간의 음악 여정을 그린다.

/박진영기자 bkd0427@metroseoul.co.kr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어메이징한 뮤지컬!

MUSICAL

요셉 어메이징

2013.12.31 ~ 2014.02.09

대학로뮤지컬센터

1577-3363 www.JATD.co.kr

날씨

12/30 月 일출 07:46 일몰 17:23

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키장의 설원을 통해 반사되는 자외선은 결막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계절흡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제공: 한림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www.palt.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7	3			4
			5			1		7
		5			2	4		6
	6				7			
	3		9	8			7	
		7	8			9	4	
8					4	7		5
	2	4	7				8	

					1	7		
		2			4		6	
		3	9			4		5
3			8		7			4
	8	9		6				
6			5		9			2
		6	7			2		1
		1			2		7	
					6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직소도쿠 마스터> (제롤린 리다이 리미티드 제공)

올해 마지막 주말에 생긴 일

박계선의 모놀로그

바빴던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2013년의 마지막 주말, 남편과 아이를 서울에 놔두고 혼자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 금요일에 도착해서 원래는 다음날 저녁 느지막이 올라오려고 했지만 여러 고민 끝에 이른 서울행 기차를 탔다.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평소 깃털처럼 가볍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했던 나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음에도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 사상을 배웠던, 한마디로 '종북'이나 '혁명'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근 30년 만에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고 싶어졌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본능적인 표현 욕구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것들이 못마땅해요'라는. 국정원의 전략적 대선 개입 문제는 여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주요 방송사의 뉴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

얼마 전 경향신문 건물로 공권력을 과다 투입한 일도 스트레스를 주었다. 철도나 의료 등 국민의 공공재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도 걱정스럽고 불안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완고한 생각만을 원칙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뭘대포나 최루액 얘기가 돌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다. 일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은 공권력의 과잉 진압만큼이나 원치 않았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나와 비슷한 보편적인 고민을 안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일반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많음을 보고 안도했다. 뿐만 아니라 혼자 혹은 둘이서 담담하고 의연한 표정으로 참가한 젊은 여성들도 많이 보였다. 집회에 참가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저마다의 이유라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내 경우 민주주의나 자유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중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라는, 어찌면 거창하거나 비장한 것이 아닌 당연한 명제를 그저 직접 몸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하는 일마다 꼬여 사업 준비중 일단 기술부터 배운 다음 도전

나의 ○수수 남자 83년 1월 21일 양력 오후 2시35분

Q 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인데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일하는 기운에 재살(災煞)이 있는데 태생적으로 겁이 많고 동정심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천성의 재질은 천성이 순진하고 착하므로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본인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의 형태를 예고하니 고립된 환경에서 모진 훈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사건 수완이 부족하고 직원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실물수가 생겨 심할 경우 검재를 동반해 비관하기도 합니다. 사업보다는 기술 개발을 선택해 노력한 다음 2016년 이후에 계획하십시오. 이성운은 다음에 신청하십시오.

새해에는 직장 옮기고 싶은데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니 명심

뭐가냐 남자 86년 4월 15일 음력 오후 7시45분
여자 83년 8월 22일 오전 3~4시

Q 두 달 전 만난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 몸담은 지 2년 정도 됐고 내년에 이직을 고려 중인데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A 명심보감에 적혀있는 공자님 말씀을 적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현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미래에 펼쳐지게 된다.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날 당신이 살아가는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마치 깨끗한 거울이 얼굴을 환히 비춰주는 수단이듯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현재를 아는 수단이며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인연과의 교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30일 / 음 11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그리운 사람과 회포 푼다. 60년생 위탁한 부탁은 그만둬라. 72년생 말이 통하는 후원자가 있어 든든하다. 84년생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의욕이 넘친다.

소 49년생 사람 얻으려면 증오를 내려놓아라. 61년생 원하던 정보 얻는다. 73년생 대가 되면 속내를 털어놓아라. 85년생 소중한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다.

호랑이 50년생 고심한 일은 해법 보인다. 62년생 양같이 마일수록 여유를 가져라. 74년생 배우자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86년생 이유 없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토끼 51년생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줘라. 63년생 무리하면 과부하 걸린다. 75년생 자식 고집이나 애정을 본심에 신경 써라. 87년생 계획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용 52년생 미지못해 선택한 것이 행운 안긴다. 64년생 문서 일은 꼼꼼히 할 것. 76년생 동료와의 갈등으로 생각 떨어진다. 88년생 튀는 운동은 문제되니 조심하라.

뱀 53년생 명분 없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라. 65년생 억지로 하면 문제만 생긴다. 77년생 내 뜻과 달라도 대세 따라라. 89년생 아쉬움 때 그만두는 결단력 필요.

말 42년생 외롭 타는 삶 종지부 찍는다. 54년생 본수에 맞게 사는 지혜 필요. 66년생 잘다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울화 쌓인다. 78년생 불필요한 겉나는 독감을 명심.

양 43년생 스스로 쌓은 벽은 무너뜨려라.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곳돈 생긴다. 67년생 조직의 중심 역할에 충실하라. 79년생 큰 뜻을 이루려면 돈 쓸 땐 화끈 써라.

원숭이 44년생 고집부리면 가족도 등 돌린다. 56년생 새것보다 옛것 중시하라. 68년생 친구의 눈물 닦아줄 일 생긴다. 80년생 잔뜩 매너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조심.

닭 45년생 변수 많으나 수단은 금물. 57년생 공적인 일은 지인과 같이 같아야 한다. 69년생 배우자 마음 헤아리는 데 신경 써라. 81년생 잔병 더운데 가릴 때가 아니다.

개 46년생 무리하면 후회만 남는다. 58년생 남의 귀중품 고장 내지 않도록 조심. 70년생 내 손 안에서 면상할 일 생긴다. 82년생 운기 좋으니 목표를 높이 잡아라.

돼지 47년생 치고 올라오는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라. 59년생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최고. 71년생 ○른 사람과의 금전 거래 삼가라. 83년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

양동근·박종천 40점 합작

모비스, KT 꺾고 5연승 LG·SK와 공동선두로

프로농구 선두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가 나란히 승리를 따내며 서울 SK와 함께 공동 선두로 복귀했다.

LG는 29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KCC와의 경기에서 78-6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달린 LG는 20승(8패) 고지를 밟으며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LG와 KCC는 전반까지 32-32로 팽팽히 맞섰다. LG의 제퍼슨과 KCC의 윌커슨이 득점 경쟁을 벌이며 접전을 만들어냈다. KCC 입장에서는 리바운드 숫자에서 20-10으로 두 배나 앞서고도 리드를 잡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전까지 LG와 공동 2위던 모비스도 울산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홈경기에서 부산 KT에 76-61로 이겼다. 모비스는 5연승의 휘파람을 불었고 KT는 시즌 최다인 5연패의 늪에 빠졌다. 모비스 역시 20승(8패) 고지를 밟으며 SK·LG와 함께 공동 선두가 됐다. KT는 인천 전자랜드와 공동 4위가 됐다.

모비스도 전반까지는 37-36으로 근소한 리드를 잡는 등 접빵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들어 점수 차를 벌리며 완승을 가져갔다. 양동근과 박종천이 나란히 20득점씩을 올렸고 라카르도 라틀리프도 15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반면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서울 삼성이 원주 동부를 81-67로 물리치고 3연패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단독 6위 자리를 사수했다.

/장성훈기자 jsh@metroseoul.co.kr

울산 모비스 양동근(왼쪽)이 부산 선수들 사이로 돌파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농구 전적 29일

팀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27	10	16	23	76
KT	24	12	12	13	61
LG	19	13	26	17	78
KCC	21	11	13	15	60
삼성	15	23	22	21	81
동부	17	12	16	22	67
삼성생명	24	20	27	17	88
국민은행	17	20	18	26	81

문성민 '날개'단 현대캐피탈

러시앤캐시 꺾고 5연승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의 주포 문성민이 올 시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V리그 러시앤캐시와 홈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장 중이던 문성민이 교체선수로 경기에 투입됐다.

이날 현대캐피탈은 3-1 역전승을 거뒀다. 주포 리버맨 아가메즈와 윤봉주 활약에 이어 재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문성민도 이날 4세트 후반 투입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팀은 5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추격에 속도를 높였다. /장성훈기자

29일 러시앤캐시와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문성민(오른쪽)이 무릎 수술 뒤 재활을 마치고 시즌 처음으로 코트에 나와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전적 29일

팀	세트	세트	팀
우리카드	3	0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3	1	러시앤캐시
GS칼텍스	3	0	현대건설

먹을 것 많았던 '코리안 더비'

기성용·김보경 첫 맞대결 골 못 넣었지만 만점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동갑내기 기성용(24·선덜랜드)과 김보경(24·카디프시티)이 맞대결을 펼쳤다.

선덜랜드와 카디프시티는 29일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2-2로 비겼다. 기성용과 김보경은 나란히 선발 출전해 팀의 무승부에 일조했다. 기성용은 풀타임을, 김보경은 후반 34분까지 79분을 뛰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던 둘은 미드필드에서 적으로 만나 경쟁을 펼쳤다. 한국 선수가 선발로 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격돌한 것은 2009년 12월 박지성(맨유)-조원희(위건) 이후 4년 만이다. /장성훈기자

곽태휘 알 힐랄 데뷔전 골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32·사진)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 힐랄 데뷔전에서 골맛을 봤다.

곽태휘는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파드 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15라운드 알 이티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2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26일 사우디 프로축구 알 샤바브에서 알 힐랄로 이적한 곽태휘는 데뷔전에서 골을 넣어 '골 넣는 수비수'라는 별명을 톡톡히 입증했다. 이날 5-1 대승을 거둔 알 힐랄은 승점 35를 기록하며 선두 알 나스르(승점 36)에 승점 1 뒤진 2위를 지켰다. /장성훈기자

박인비 메이저대회 3연승 골프계 최고의 순간 4위에

골프 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2013년 골프계 최고의 순간 4위에 올랐다.

올해 '골프계 최고의 순간' 10가지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미국 야후 스포츠는 29일 박인비의 메이저대회 3연승을 네 번째로 전하며 "만약 박인비의 올 시즌 업적을 남자프로골프(PGA) 투어 선수가 이뤘다면 이는 신문 스포츠면이 아닌 1면 톱으로 소개됐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여자미국프로골프(LPGA) 투어가 선수들의 실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인비는 올해 한 시즌에 3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네 번째 선수가 돼 LPGA 투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장성훈기자